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에 따른 노후의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

곽 인 숙(우석대 교수)

본 연구는 노후의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에 따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노인주택 기획과 설계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100세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은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노인의 주거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주거관련변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업 유무,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거주형태, 가족수, 월평균 가계총소득, 용돈 등을 포함하였으며, 주거공간적 특성으로는 거주지역, 주택형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경우가 62.2%로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0.6%를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57.2%로 약간 많았다.

둘째, 미래에 노인이 건강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현재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90.7%로 아주 강했으며, 현재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노인전용시설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보다 더 많았다. 배우자유무는 건강할 경우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주거유형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지금보다 건강이 나빠질 경우 가장 선호하는 주택 역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49.2%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전용주거시설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35.4%로 나타나 현재의 주거에 대한 선호라는 답변의 일관성을 보였다.

넷째, 미래에 현재보다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과 배우자유무의 관계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현재의 주택에서 그대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의 주택보다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노인전용요양시설로 가거나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보다 많았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미래에 선호하는 주거유형의 차이를 보였으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경우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중 가장 많은 것이 단독주택이며, 주택이 건축된 해수가 오래된 경우가 많아 주거공간내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들이 현재의 주택에서 오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문턱없애기, 실내공간의 단차 없애기,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등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수리 도우미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